

#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가 직업 영역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Peer Support Program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신정하, 신윤재, 이명수

JH Shin PRN, YJ Shin MSW, MS Lee MD, MPH

## 초 록

- **연구목적** :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직무로 가능할 것인지 탐색하고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직무영역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동료지원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동료지원가 고용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부터 12월까지 사전-사후 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윌콕슨의 순위검증(Wi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 Test)을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동료지원가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 동료지원가는 동료지원서비스의 장점을 살린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앞으로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 **주요용어** : 동료지원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 Abstract

-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effectiveness of Peer Support Program(PSP) for building up the evidence of new vocational rehabilitation territory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 **Methods** : From September to December in 2013, pre- and post-evaluation was conducted to the PSP providers, PSP users and mental health practitioners of project-participating mental health agencies. Wi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 Test was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 **Results** : There were no definit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however the subjective responses of PSP providers and users were promising. They reported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while providing and receiving PSP which could make positive influences for their recovery.
- **Conclusion** : PSP could be a promising strategy to exp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territory and also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 **Keyword** : Peer Support Program, Mentally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용 유지는 지역사회에 참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정신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잘못된 이해, 정신장애인

의 직업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근로자로서의 이해부족, 사업주들이 정신장애인의 고용에 소극적인 이유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오랜 직업재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취업률이 그리 높지 않아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만족스러운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경희, 2006). 특히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타 장애유형보다 열악하며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11.12%로 장애유형 평균 35.4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체장애 43.95%, 시각장애 42.17%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취업 장애인의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112개월, 임금근로자 기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그리고 임금근로자 기준 월 평균수입은 143만원인 것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58개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1시간, 월 평균수입은 53만원으로 취업 장애인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한 정신장애의 주요 직무로는 단순노무직이 68.7%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종사자(13.5%), 서비스종사자(7.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6.4%), 전문가종사자(2.0%) 순이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MOU를 맺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영역을 개발하고 정신장애인 취업 가능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서울지역 정신보건기관 9개소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17개 직무를 발굴하였으며 그 중 고용 가능성이 높은 동료상담가, 카페매니저를 선정하여 2012년 11월 27일 ~ 12월 26일까지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동료상담 및 독립주거코디네이터, 가정방문지원자의 고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전문직종인 '동료지원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 PSP)' 직무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동료지원프로그램이란 회복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하며 주요 업무로는 동료상담과 프로그램 진행, 교육 강사 활동이 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바로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장애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감정을 분출시키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동료들에게 지지를 받음으로써 사회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신만의 생활방식을 상호교환 할 수 있다(임기현, 2003).

또한 Salzer와 Shear(2002)는 동료제공서비스의 다섯 가지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로서 소속감과 성장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경험적 지식으로서 질병에 대한 대처, 자기결정 및 선택에 있어서 실제적인 정보와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질병이나 서비스에 대응하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비교를 통해 성장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역량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외 동료지원서비스가 병원이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와 기능 및 삶의 질을 높이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지원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동료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낙인 및 부정적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ebles et al. 2007, 하경희, 201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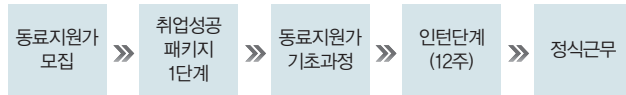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잘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

외국의 동료지원서비스는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이 같은 어려움을 가진 동료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송경옥, 2010). 그러던 중 2008년 동료방문서비스가 서울모금회의 지원 사업으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선정되었다(한울, 2013). 이를 통해 동료지원서비스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활용하는 사회복귀시설이 늘어나면서 2012년에는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자조모임 운영, 이용안내 등의 활동을 하는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라는 직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범적인 시험고용 활동을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토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직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을 모집하여 기초과정 교육 후 2013년 9월부터 정신보건기관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12월 기준 총 12명의 동료지원가가 서울지역 6개 정신보건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가능한지 탐색하고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정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그림 1. 서울시 동료지원프로그램 체계도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방법

#### 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6개 기관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12명이다. 조사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동료지원가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자아존중감, 정신건강회복, 사회자립도, 삶의 질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4개월 후 사후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사후평가와 함께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직무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동료지원가가 근무하고 있는 정신보건기관에서 동료지원가에게 프로그램 진행,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원가 직무 적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25명 중 17명은 동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자아존중감, 정신건강회복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동료지원서비스 이용 후 같은 척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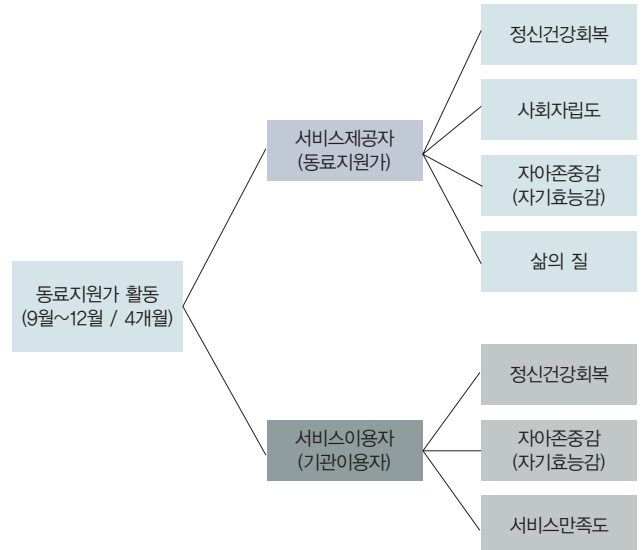
#### 3) 동료지원가 고용 기관 실무자

동료지원가를 고용한 기관의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동료지원가의 직무적합성과 실무자로서 동료지원가와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동료지원가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모두 30명 이하이므로 윌콕슨의 순위검정(Wi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동료지원활동 전, 후이며 종속변수는 동료지원가의 경우 자아존중감, 정신건강회복, 사회자립도, 삶의 질이며 이용자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회복이다. 또한 동료지원가 및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적고 조사 기간 또한 짧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 그림 2. 연구모형도



### 3.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4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동료지원가의 사전-사후 검사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기 전 자아존중감 척도, 정신건강회복척도, 사회자립도 척도, 삶의 질 척도이다. 이후 4개월간 동료지원가로 활동 후 같은 척도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다.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사전-사후검사는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와 정신건강회복척도를 사용하였다.

#### 1) 자아존중감

Peebles et al.(2007)에 따르면 동료지원서비스가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고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권장할 만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RSES는 5점 척도지만 4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역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정신건강회복

회복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동료지원서비스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동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회복의 변화를 보는 것은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건강회복척도(Mental health Recovery Measure : MHRM) 한국어판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측정하기 위해 Bullock(2005)의 정신건강회복척도를 송경욱(2010)이 한국 실정에 맞춰 개발한 것이다. 정신건강회복척도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들의 회복과정을 광범위하게 측정하기 위한 자기 보고 측정도구로 만들어졌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의 개념은 곤경극복(Overcoming Struckness), 자기역량강화(Self-Empowerment), 배움과 자기재정의(Learning and Self-Redefinition), 기본적 기능(Basic Functioning), 전반적인 삶의 질(Over Well-Being), 새로운 잠재력의 달성(Reaching New Potentials), 옹호와 충만감(Advocacy/Enrichment), 영성(Spiritua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사회자립도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개념으로 일본자립생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자립생활이란 의사결정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득되는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신변처리, 지역에서의 일상 생활에의 참가,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신체적 심리적인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할 것이 포함된다.

정신장애인에게 사회자립도는 회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자립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변자립(규칙적인 생활, 개인위생, 장애개선이지, 도움요청 및 거절), 이동자립(근거리이동, 일상사무처리, 대중교통, 복지시설이용), 심리자립(자기결정, 자기선택, 자신감, 자존감), 사회자립(권리요구, 단체활동, 대인관계, 사회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척도에서 정신장애인과 무관한 문항 5개를 제외하였다.

### 4) 삶의 질

동료지원서비스가 병원이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와 기능 및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보고가 있다(Peebles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척도(Happy QOL)를 통해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양옥경(1994)이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삶의 만족 척도의 점수 범위는 최고점 132점, 최저점은 0점이다.

### 4.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동료지원가가 근무하는 정신보건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은 <표 1>과 같다.

★ 표 1. 대상별 설문항목 및 내용

설문대상	항 목	문항내용	문항수
공통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의 적합성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의 여부	1
	동료지원가의 직무 적합성	동료지원가의 직무-동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강사-의 적합성 여부	4
	동료지원서비스의 필요성	정신보건기관에 동료지원서비스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이유	2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의 필요성	앞으로 동료지원가가 확산 보급되어야하는지의 여부와 이유, 확산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동료지원가	동료지원가를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권유할 의향	동료지원가로 취업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지원가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와 그 이유	3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느낀점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성장이나 회복에 도움이 된 점 및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점,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해 주고 싶은 말	3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동료지원서비스 만족도	주로 제공받은 동료지원서비스 및 만족도와 이유	4
	동료지원가로 지원할 의향	동료지원가로 취업할 기회가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와 그 이유	3
동료지원가 고용 기관 실무자	본인 업무 도움 여부	동료지원가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유	2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지원가 권유할 의향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지원가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와 이유	3
	동료지원가의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전문직종으로 확산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이유	1
	본인의 성장에 도움 여부	동료지원가 고용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와 이유	1

### III.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 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본 연구에 참여한 동료지원가의 일반적 특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동료지원가는 남성이 8명, 여성이 4명이고 연령대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명, 50대가 2명, 20대가 1명이었다. 진단명은 대부분은 조현병이었으며 기타 진단명으로는 분열정동장애, 조울증, 알콜성 우울증이 있었다. 유병기간은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대부분 만성정신장애인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신보건기관 이용 기간은 1년 미만이 3명이 있었고 9년이 가장 오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12명의 동료지원가 중 4명은 서울의료원의 위탁기관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8명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다. 이중 3명은 이전에 동료지원활동의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이었고 나머지 9명은 그렇지 않았다.

★ 표 2. 동료지원가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8	67
	여성	4	33
연령대	20대	1	8
	30대	6	50
	40대	3	25
	50대	2	17
최종학력	고등학교	6	50
	2, 3년제 대학	2	17
	4년제 대학	4	33
장애등급	없음	3	25
	3급	7	58
	2급	2	17
진단명	조현병	7	58
	분열정동장애	2	17
	조울증	2	17
	알콜성 우울장애	1	8
유병기간	5년 미만	0	0
	5년 이상-10년 미만	3	25
	10년 이상-20년 미만	6	50
	20년 이상-30년 미만	1	8
	30년 이상	2	17
입원횟수	없음	1	8
	1회 이상-5회 미만	9	75
	5회 이상-10회 미만	1	8
	10회 이상	1	8
정신보건기관 이용기간	1년 미만	3	25
	1년 이상-5년 미만	5	42
	5년 이상-10년 미만	4	33
활동기관	사회복지시설	8	67
	정신건강증진센터	4	33
동료지원활동 경험	없음	9	75
	있음	3	25

##### 2)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서울지역 2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4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동료지원가가 제공하는 동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다. 남자가 18명으로 여자보다 11명이 많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명을 보면 분열정동장애 1명을 제외한 24명이 조현병이고, 정신보건기관은 56%인 14명이 1년 미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23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자가 2명이었고 22명이 동료지원서비스를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8	72
	여성	7	28
연령대	10대	1	4
	20대	5	20
	30대	5	20
	40대	10	40
	50대	4	16
진단명	조현병	24	96
	분열정동장애	1	4
소속기관	사회복지시설	23	92
	정신건강증진센터	2	8
정신보건기관 이용기간	1년 미만	14	56
	1년 이상-5년 미만	5	20
	5년 이상-10년 미만	6	24
동료지원서비스 경험	없음	22	88
	있음	3	12

##### 3) 동료지원가 고용 기관 실무자

동료지원가를 고용한 기관의 실무자는 총 6명으로 사회복지시설 3명,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여성이 4명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보건영역 실무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명이고 10년

★ 표 4. 동료지원가 고용 기관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	34
	여성	4	66
연령대	20대	1	17
	30대	4	66
	40대	1	17
근무기관	사회복지시설	3	50
	정신건강증진센터	3	50
정신보건영역 실무 경력	1년 이상-5년 미만	2	33
	5년 이상-10년 미만	3	50
	10년 이상	1	17
직종	사회복지사	2	3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	66



이상이 1명이었다.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2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4명이었다.

## 2.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 1) 동료지원서비스 활동 내용

동료지원서비스는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2곳과 사회복지시설 4곳에서 근무하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가 각 기관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동료상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는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정신장애인과 주로 일대일로 동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동료지원가가 외부 활동 없이 집에서만 지내는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정신과적 증상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함께 외부활동을 격려하는 가정방문지원서비스이다. 그 외 이용자가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취업장을 방문하여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듣고 지지하는 취업장 방문서비스와 가정방문조차 거부하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보건기관에 신청을 한 후 등록을 기다리는 이용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방문서비스가 있다.

#### ② 프로그램 운영

동료지원가는 정신보건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동료지원가가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 및 마무리,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료지원가는 이용자에게 전화를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참석을 격려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보조 진행자의 형태로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종류는 영화동아리 운영, 탁구동아리 운영, 다시서기-관계맺기 프로그램, 취업지지 모임, 자치회의 등이 있다.

또한 정신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간호실습생이나 방문자에게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 ③ 교육 강사

교육 강사 활동은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 및 가족, 정신보건실무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증상 대처, 회복의 과정, 당사자의 인권, 방문자 안내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동료지원가가 주로 활동한 내용은 정신장애인 및 정신보건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 2) 동료지원가 사전-사후평가

동료지원활동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에 미친 영향을 동료지원활동 전과 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척도의 사전검사의 평균은 26.08(SD=1.929), 사후검사의 평균은 27.17(SD=1.74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건강회복척도와 삶의 질 척도 또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립도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이 80.50(SD=16.676)에서 86.58(SD=6.307)로 평균값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동료지원서비스가 자아존중감, 정신건강회복, 사회자립도, 삶의 질의 상승 효과를 확인하기에 연구 기간이 짧고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데이터를 객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료지원가가 동료지원활동을 하면서 병식이 생기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오히려 사후검사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오기도 하였다.

★ 표 5. 동료지원가 사전-사후 검사 분석 결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Z
자아존중감 척도	사전검사	26.08	1.929	-1.634
	사후검사	27.17	1.749	
정신건강회복 척도	사전검사	120.67	17.936	-.118
	사후검사	121.25	21.486	
삶의 질 척도	사전검사	95.25	22.852	-.712
	사후검사	99.42	13.668	
사회자립도 척도	사전검사	80.50	16.676	-.445
	사후검사	86.58	6.037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활동의 효과성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동료지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6〉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본인의 회복이나 성장에 도움이 된 점에 대해 서술형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자아존중감 향상, 정신건강회복, 대인관계,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그 중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기술되었다. 이는 동료지원활동이 동료지원가에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움을 시사한다.

### 3)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사전-사후평가

동료지원가가 제공하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정신장애인의 사전, 사후 척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척도의 평균점수는 26.29(SD=2.910)에서 26.41(SD=2.34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신건강회복척도는 동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료지원가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회복을 향상시키기에는 동료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이 짧고, 제공 받은 동료지원서비스가 기관마다 상이하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한계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표 6.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도움이 된 점

도움이 된 부분	구체적 기술 내용
자아존중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감이 회복되고 동료 회원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li> <li>-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li> </ul>
정신건강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안의 아픔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나 스스로가 치유되었다.</li> <li>- 다른 사람을 보며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알 수 있게 되었다.</li> <li>- 동료지원가 업무에 집중하며 오히려 정신과적 증상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졌다.</li> </ul>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판단력과 의지력이 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아졌다.</li> <li>-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조금씩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li> <li>- 그 동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였는데 관심이 여러 방면으로 넓어졌다.</li> <li>-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li> <li>- 경청하는 방법을 배웠다.</li> <li>-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표정이 밝아져서 기분이 좋았다.</li> <li>-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판단력과 의지력이 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아졌다.</li> <li>- 타인의 성장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타심이 생겼다.</li> </ul>
업무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사용 능력 등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li> </ul>

★ 표 7.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사전-사후 검사 분석 결과

구분		평 균	표준편차	Z
자아존중감척도	사전검사	26.29	(2.910)	-.190
	사후검사	26.41	(2.347)	
정신건강회복 척도	사전검사	100.06	(22.717)	-.511
	사후검사	100.06	(21.513)	

### 3. 동료지원가 활동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가 및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적고 조사 기간 또한 짧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료지원가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공통설문

동료지원서비스는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2곳과 사회복지시설 4곳에서 근무하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가 각 기관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동료지원가 직무의 적합성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적합한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지원가의 주요 직무인 동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강사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4%, 74%, 81%로 높게 나타났다.

각 설문에 동료지원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동료지원가 고용기관 실무자 별로 살펴보면 동료지원가는 대부분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많이 한 반면 이용자는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 표 8. 동료지원가 직무의 적합성 설문조사 결과

항 목	대상	응답내용(n/%)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의 여부	동료지원가 (N=12)	-	-	-	2(17)	10(83)
	이용자 (N=25)	1(4)	1(4)	7(28)	4(16)	12(48)
	실무자 (N=6)	-	1(17)	-	3(50)	2(33)
	합계	1(2)	2(5)	7(16)	9(21)	24(56)
동료지원가의 직무-동료상담-의 적합성 여부	동료지원가	-	-	1(8)	2(17)	9(75)
	이용자	-	-	6(24)	10(40)	9(36)
	실무자	-	-	-	3(50)	3(50)
	합계	-	-	7(16)	16(37)	20(47)
동료지원가의 직무-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여부	동료지원가	-	-	1(8)	3(25)	8(67)
	이용자	1(4)	2(8)	7(28)	6(24)	9(36)
	실무자	-	-	-	3(50)	3(50)
	합계	1(2)	2(5)	8(19)	13(30)	19(44)
동료지원가의 직무-교육강사-의 적합성 여부	동료지원가	-	-	1(8)	3(25)	8(67)
	이용자	2(8)	-	4(16)	8(32)	11(44)
	실무자	-	-	1(17)	4(66)	1(17)
	합계	2(5)	-	6(14)	15(34)	20(47)

#### (2) 동료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정신보건기관에 동료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는 ‘동료지원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정보제공과 접근이 가능하다’, ‘동료에게 성장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가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동료지원가는 ‘동료지원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정보제공과 접근이 가능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동료에게 소속감과 긍정적 지지를 제공한다’에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와 동료지원가와 이용자가 생각하는 동료지원서비스의 필요 이유가 상이함을 할 수 있다.

★ 표 9. 동료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설문조사 결과

대 상	응답내용(n/%)			
	동료에게 소속감과 긍정적지지를 제공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정보제공과 접근이 가능함	동료에게 성장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함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자신감이 향상됨
동료지원가	-	6(50)	3(25)	3(25)
이용자	9(36)	6(24)	8(32)	2(8)
실무자	-	2(33.3)	2(33.3)	2(33.3)
합계	9(21)	14(33)	13(30)	7(16)

## (3)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

## ①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 필요성 여부

앞으로 동료지원가가 확산 및 보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총 72%로 나타났다. 동료지원가는 92%가 ‘그렇다’로 응답하여 다른 대상에 비해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경우도 76%가 동료지원가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6%(4명)으로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에 대해서 동료지원가와 실무자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한 이유

동료지원가가 확산 및 보급되어야 하는 이유로 ‘동료지원활동을 통

★ 표 10.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 필요성 여부 설문조사 결과

항 목	대상	빈도(n)/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의 필요성 여부	동료지원가	-	-	1(8)	2(17)	9(75)
	이용자	-	4(16)	5(20)	3(12)	16(64)
	실무자	-	-	2(33)	1(17)	3(50)
	합계	-	4(9)	8(19)	6(14)	25(58)

해 동료지원가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전문직종이기 때문이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동료지원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실무자 모두 동료지원활동이 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될 뿐만 아니라 동료지원가 자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 ③ 동료지원가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동료지원가가 확산 및 보급이 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동료지원가가 정착할 수 있는 예산적인 지원’이 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료지원가에 대한 기관 종사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식 변화’, ‘동료지원가로 근무할 정신장애인이 교육받을 기회’, ‘동료지원가를 고용하려는 기관의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동료지원가의 경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동료지원가에 대한 기관 종사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식 변화’라고 응답한 반면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와 실무자는 ‘동료지원가가 정착할 수 있는 예산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11. 동료지원가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한 이유 설문조사 결과

대 상	응답내용(n/%)				무응답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전문직종이기 때문임	정신장애인이 취업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임	동료지원서비스가 정신보건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임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동료지원가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	
동료지원가	5(42)	2(17)	1(8)	4(33)	-
이용자	7(28)	5(20)	4(16)	8(32)	1(4)
실무자	2(33)	1(17)	-	3(50)	-
합계	14(33)	8(19)	5(12)	15(34)	1(2)

★ 표 12. 동료지원가 확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설문조사 결과

대 상	응답내용(n/%)					
	동료지원가로 근무할 정신장애인이 교육받을 기회	동료지원가가 정착할 수 있는 예산적인 지원	동료지원가를 고용하려는 기관의 증가	동료지원가에 대한 기관 종사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식 변화	기타	무응답
동료지원가	-	2(17)	4(33)	5(42)	1(8)	-
이용자	6(24)	9(36)	3(12)	4(16)	2(8)	1(4)
실무자	2(33)	3(50)	-	1(17)	-	-
합계	7(16)	14(33)	6(14)	10(23)	3(7)	3(7)



## 2) 동료지원가 대상 설문

## (1) 동료지원가를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권유할지 여부와 이유

## ① 동료지원가 권유 여부

동료지원가로 근무하고 있는 12명을 대상으로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지원가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9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표 13. 동료지원가 권유 여부 설문조사 결과

(n=12)

항 목	빈도(n)/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료지원가를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	-	-	1(8)	2(17)	9(75)

## ② 동료지원가를 권유하는 이유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지원가를 권유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우며 본인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가장 많았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는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동료지원가가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도울 뿐 아니라 본인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재활의 의미를 지닌 직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14. 동료지원가를 권유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

항 목	빈도(n)	비율(%)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4	33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임	-	-
정신장애인의 동료의 회복을 돕는 보람된 일이기 때문임	3	25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우며 본인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임	5	42
총 응답수	12	100

## 3)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

## (1) 동료지원가에게 주로 받은 서비스 내용

정신보건기관에서 동료지원가에게 동료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76%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고 다음으로 '동료상담서비스'로 나타났다. 동료지원가에게 강의를 들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없었다.

★ 표 15. 동료지원가에게 주로 받은 서비스 내용 설문조사 결과

항 목	빈도(n)	비율(%)
동료상담서비스(가정방문지원서비스, 신규회원멘토서비스, 취업장방문서비스, 독립주거지원서비스 등)	6	24
각종 프로그램(동아리 프로그램, 취업자 프로그램 등)	19	76
강의(방문자교육, 인권교육 등)	-	-
기타	-	-
총응답수	25	100

## (2) 동료지원서비스 만족도

## ① 만족도

동료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12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 11명(44%) '별로 만족하지 않음'이 2명(8%)으로 나타났다.

★ 표 16. 동료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n=25)

항 목	빈도(n)/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동료지원가가 제공하는 동료지원서비스 만족도	-	2(8)	11(44)	4(16)	8(32)

## ② 동료지원서비스가 만족스러운 이유

동료지원가의 동료지원서비스가 만족스러운 이유는 11명이 '같은 정신장애인이지만 동료지원가로 근무하는 모습을 보며 성장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응답하여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에게 회복의 Role Model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표 17. 동료지원서비스가 만족스러운 이유 설문조사 결과

항 목	빈도(n)	비율(%)
소속감과 긍정적 지지를 제공 받음	-	-
동료지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 받음	2	8
정신장애인이지만 동료지원가로 근무하는 모습을 보며 성장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었음	11	44
실무자보다 편하게 힘든 점을 말 할 수 있었음	4	16
기타	8	32
총응답수	25	100

## ③ 동료지원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

동료지원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4명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동료지원서비스가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용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18. 동료지원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 설문조사 결과

항 목	빈도(n)	비율(%)
같은 정신장애인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점만으로도 불편함	2	8
동료지원가에게 상담한 내용이 실무자에게 전달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	3	12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함	4	16
동료지원가의 태도에 거부감이 듦	2	8
기타	3	12
무응답	11	44
총응답수	25	100

## (3) 동료지원가 지원 의향

## ① 동료지원가 지원 여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추후 동료지원가로 취업할 기회가 있다면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14명(56%)이 '그렇다', 8명(3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표 19. 이용자의 동료지원가 지원 여부 설문조사 결과 (n=25)

항 목	빈도(n)/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료지원가로 취업할 기회가 있다면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	3(12)	5(20)	3(12)	5(20)	9(36)

## ② 동료지원가로 지원하는 이유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이 동료지원가로 지원하는 이유는 4가지 항목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 표 20. 동료지원가로 지원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

항 목	빈도(n)	비율(%)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4	16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임	5	20
같은 정신장애인 동료의 회복을 돕는 보람된 일이기 때문임	6	24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우며 본인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임	4	16
기타	-	-
무응답	6	24
총응답수	25	100

## ③ 동료지원가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

동료지원가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같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가 9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동료지원활동이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우며 본인도

성장할 수 있기는 하나 회복이 힘든 과정임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21. 동료지원가로 지원하고 싶지 않은 이유 설문조사 결과

항 목	빈도(n)	비율(%)
비장애인과의 근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임	1	4
급여,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음	4	16
같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임	9	36
대중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임	1	4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임	3	12
무응답	7	28
총응답수	25	100

## 4) 동료지원가 고용 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

## (1) 업무적인 부분

## ①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동료지원가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정신보건기관의 담당 실무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6명 중 4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된 점은 '정신장애인에게 실무자가 제공할 수 없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전화연락, 행정업무 등에 도움이 되었다'로 응답하였다. 반면 동료지원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며 슈퍼비전, 직원관리 등 업무가 늘어났고 동료지원가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어 업무 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 (2) 동료지원가 권유 의향

## ① 동료지원가를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권유하는지의 여부

정신보건기관 실무자는 정신장애인에게 100% 동료지원가를 권유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우며 본인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가장 많았다. 이는 실무자가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동료지원가를 지켜본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 (3)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전문 직종으로 성장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

실무자로서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전문 직종으로 성장하는데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동료지원가가 지치지 않고 지지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유지, 슈퍼비전 체계 유지

- 지속적인 동료지원가 역량강화교육 및 전문직으로 기본적인 상담, 정신과 관련 교육
- 동료지원가 확산을 위한 예산 확보
- 동료지원가를 채용하려는 기관의 확산
- 동료지원가 스스로 직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개발을 지속해야 함
- 근무 공간 및 기타 근무 환경 확보

#### (4) 실무자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 점

실무자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 정신장애인의 취업 담당자로 취업장 고용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됨
- 정신장애인을 좀 더 강점 관점으로 보게 됨
- 동료지원가의 회복과 성장을 지켜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됨
- 정신장애인을 회원이 아니라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김
- 회원으로 대할 때는 듣기 힘든 정신장애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됨

#### IV. 고찰 및 결론

동료지원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정신건강회복, 삶의 질, 사회자립도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보기에는 연구기간이 짧았고 동료지원가의 활동 또한 아직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료지원가로 활동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용자보다 평균점수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의 경우 동료지원가는 평균 1.09, 정신건강회복이 1.25 상승한 반면 이용자는 자아존중감은 평균 0.02 상승하였고 정신건강회복은 변화가 없었다. 반면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동료지원가가 활동하기 전 새로운 기대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인해 전반적인 결과가 높았으나,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한계에 부딪히고 다른 정신장애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현실을 인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동료지원가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으며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도우며 자신도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신보건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문에 응답한 6명의 실무자 모두 동료지원가가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자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지원가를 추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료지원가를 옆에서 지켜봐온 실무자들의 경험적, 관찰자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동료지원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실무자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고, 동료상담, 프로그램 진행, 강사활동의 직무도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주로 프로그램에서 동료지원가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료상담의 경우 대부분 일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명의 동료지원가가 만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경우 한 회기에 여러 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료지원가가 정신보건기관에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동료지원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정보제공과 접근이 가능하다', '동료에게 성장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는 이유가 컸는데 이는 정신보건기관에서 실무자들은 제공할 수 없는 동료지원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나타낸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경계심이 많은 정신장애인에게 접근하는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정신장애인을 방문하는 가정방문지원서비스에 적극 활동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동료지원가가 정신보건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정신과적 증상이 회복되고 교육을 받으면 동료지원가로 근무할 수 있다는 롤모델이 되어 정신장애인에게 희망과 회복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동료지원가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토대로 '동료지원가가 확산 및 보급되어야 한다'에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전문직종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동료지원프로그램이 발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산적인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동료지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원으로 채용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동료지원가의 수가 양적으로 늘어나야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으로 자신의 회복을 통해 실무자는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동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동료지원가를 채용하려는 기관이 늘어날 것이다.

동료지원가가 정신보건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무자의 역할이 크다. 동료지원가가 기관의 환경과 동료지원가로서의 직무에 적응이 되기까지 실무자는 동료지원가의 업무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무자 본인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보건영역의 실무자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료지원가와 함께 근무하며 슈퍼비전을 주거나 관리해야하는 직원의 수가 늘어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동료지원가가 정신보건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실무자의 업무량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3년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인 '동료지원가'를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가능한지 탐색하고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정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열악했던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주로 단순노무직에서 근무하던 정신장애인의 직업 환경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역 정신보건기관에서 시행되어 온 동료상담을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 서비스를 처음으로 직업화 하여 취업까지 연결한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동료지원가로 근무하는 정신장애인 중 30대가 6명, 40대가 3명, 50대가 2명으로 총 근무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회복의 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에게 전문 직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가 및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적어 정확한 효과성을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동료지원가와 동료 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객관적인 효과성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 V. 참고문헌

- 김미영(2011). 정신장애인의 회복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정연(2002). 《정신장애인을 위한 텔레마케팅 직업영역개발》.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실 상담평가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2013). 《다시서기 및 관계맺기의 운영매뉴얼》.
- 서울특별시·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2011). 《서울시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 송경옥(2010). 사회복지시설의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서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지서비스-동료방문서비스를 중심으로. 2011년 사회복지시설협회 추계세미나 발표자료.
- 송경옥(2010). “한국어판 정신건강회복척도(MHRM-K)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154-188.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2013). 《정신보건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천 매뉴얼 도움닫기》.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2013).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가 직무지침서》.
- 양옥경(1994).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4:157-198.
- 이근희, 김미영, 한은정(2012). “정신장애인 평생계획(Permanency Planning)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정신보건》. 2:8-17.
- 임기현(2003). “중증장애인의 동료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경희(2006).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병재(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107-130.
- 조규환(2007). 《마우스로 잡는 SPSS 14.0》. 서울: 인간과 복지.
- 하경희·성준모(2012).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장애유형간 비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6(2):131-158.
- 하경희(2012).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지도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3):175-20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 《2012년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
- Bullock, W. A.(2005). “The Mental Health Recovery Measure (MHRM)”, In Campbell-Orde, T., J. Chamberlin, J. Carpenter and H. S. Leff, H.S.(Eds.), 《Measuring the Promise of Recovery:A Compendium of Recovery Measure》. Volume II. The Evaluation Center@HSRI: Cambridge,MA.
- Peebles, S. A, Mabe, A, Davidson, L, Buckley, P, F., and Fenley, G(2007) “Recovery and systems transformation for Schizophrenia”,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0(3):567-58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zer, M., and Shear, S. I.(2002). “Identifying consumer-provider benefits in evaluations of consumer-delivered servic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25:127-139.